

QSCC II 와 MBTI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의 성격유형 연구

최선미, 지상은*, 정봉연**, 안규석***, 고병희, 성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주) 제노피아, ** 만강한의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Abstract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Myers-Briggs Type Indicator

Choi Sunmi, Chi Sangeun*, Jung Bongyeon**, Ahn Kyooseok***,
Koh Byunghee, Sung Hyunjea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Genopia

** Mangang Oriental Clinic

*** Kyunghee University Oriental Medical College, Pathology Laborator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s by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154(101/53) of Oriental Medical College at Kyunghee University. After determining the Sasang Constitutions(Soemin, Soyangin, Taeumin) by QSCC II,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analysed by MBTI.

Results :

- 1)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72.7% of agreement in discriminant analysis by MBTI question item for differentiating among Soemin, Soyangin and Taeumin.
- 2)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are 57.9% of agreement in discriminant analysis by MBTI score for differentiating among Soemin, Soyangin and Taeumin.
- 3) Soemin group showed more preference for Introversion.
- 4) Taeumin group showed more preference for Sensing.
- 5) Soyangin group tended to be Intuition, Perception types.

Conclusion :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and MBTI psychological typ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MBTI could be useful tool to underst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s.

Keyword : Sasang constitutions, Myers-Briggs type indicator, QSCC II

I. 서론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진단프로그램은 객관적인 사상 체질진단을 위한 PC용 프로그램으로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여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¹⁾와 타당성 연구²⁾를 통하여 체질진단의 정확률이 입증되었고,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표준화작업을 거쳐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상체질의학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체질진단의 근거도구로서 일반 한의사들이 체질진단에 활용하고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QSCC II 설문지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성별, 혈액형, 결혼상태, 교육상태, 직업 5가지에 대한 질문과 설문문항 121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주관식 15문항과 객관식 106문항으로 구성되며, 주관식은 體形氣像, 容貌詞氣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되어있으며, 객관식은 일처리와 장단점 19문항, 대인관계 13문항, 평소의 마음 14문항, 문제점 6문항, 감정특성 5문항, 행동특성 29문항, 몸 상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 심리유형검사)는 C.G. Jung(1875-1961)의 심리유형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도구로서, MBTI는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자기보고를 통해 인식하고 판단할때의 각자 선호하는 경향을 찾고, 또 이러한 선호경향들이 하나하나 또는 여러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이제마(李濟馬, 1837-1990)는 『格致叢』에서 인간의 심성을 깊이 연구하여 知人の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知人하고 治心正己하여 中庸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에는 事心身物이란 四象論적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C.G. Jung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 자기라는 四位論적인 관점을 사용하였고 심리적 유형론을 직관형, 감정형, 감각형, 사고형의 4개로 설명하였다.³⁾ 李⁴⁾는 태양인,

소양인은 외향적이며 태음인, 소음인은 내향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성격요인 검사의 사상체질분류방법으로의 도입 가능성을 趙⁵⁾는 太陽尺度는 외향형, 인식형, 직관형이며, 소양척도는 인식형, 직관형이고, 태음척도는 감각형이며, 소음척도는 내향형, 판단형이라는 연구와 심리검사 방법이 사상체질분류방법에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金³⁾은 C.G. Jung의 四位論적인 관점이 이제마의 事心身物의 방법을 통한 관찰과 유사하고,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의 4분류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사상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朴⁶⁾은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와 MBTI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며 인식형으로 상대적으로 감정형으로, 소음인은 내향적이고 감각형이며 사고와 인식형에 가까우며, 태음인은 의외로 외향형이고 감각형, 사고형이며 인식형에 가까운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蔡⁷⁾는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서로 구별함에 있어서 MBTI를 이용한 판별함수는 62.0%의 일치도를 보이며,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외향적이고 사고적 판단을 선호하며, 인식적 태도를 취하고, 예술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태음인은 소음인과 소양인의 중간정도 내향성을 보였고, 감각적 인식과 인식적 태도를 선호하였으며, 보호자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소음인은 다른 체질보다 내향성, 감각적 인식, 판단적 태도를 선호하며 보호자적 태도가 많은 반면 예술가적 태도, 합리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앞선 연구가 모두 심리유형이 사상체질의 性情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 연구로서 개략적인 검토에서부터 구체적인 분석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유형과 체질간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BTI에 의한 성격유형과 이제마의 사상체질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연구대상자 154명에게 MBTI 심리유형검사와 QSCC II 사상체질검사를 가지고 사상체질별 MBTI 성격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QSCC II에 의한 사상체질과 MBTI 선호지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MBTI를 사상체질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가?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상체질검사와 심리유형검사를 모두 시행한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사상체질검사

사상체질은 사상체질설문지(QSCC II)를 통해 얻은 답변을 Win QSCC II 99 version(주) 쏘드메디컴 & 쏘드오엠에스/ 대한한의학회 사상학회)에 입력하여, 체질 판단 기본결과, 체질별 T값(TYT, SYT, TET, SET), 체질 척도 I(SYD, TED, SED), 체질 척도 II(D-SY, D-SE, D-TY, D-TE)와 판별함수 값(D1, D2)를 구하였다.

3. 심리유형검사

MBTI 보수교육을 마친 한의사의 지도 하에, MBTI GS형 검사지(한국심리검사연구소)를 실시하였다. 각 개인의 MBTI 선호 유형 결과에서 4가지 선호경향에 따른 유형, Kiersey의 4기질과 16개의 성격유형을 구하였다. 선호도가 비연속점수이기 때문에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연속점수로 환산하였다. 중간점수를 100으로 두고 E, S, T, J의 선호점수인 경우 연속점수는 100에서 선호점수를 빼며, I, N, F, P의 선호점수

인 경우 연속점수는 100에다 선호점수를 더하였다. 따라서 EI, SN, TF, JP의 연속점수가 100이상은 각각 I, N, F, P를 의미하여 숫자가 클수록 각각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100이하의 E, S, T, J를 뜻하고 숫자가 작을수록 각각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⁸⁾. 설문문항 94개에 대한 답변은 문항별 분석에 이용하였다.

4.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MBTI 선호지표의 연속점수와 사상체질별 간의 연관성의 정도는 ANOVA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Tukey HSD의 다중비교에 의하여 사후 검증을 하였다. 체질별 MBTI 선호지표, 기질, 주기능 차이는 Pearson Chi-Square tests를 하였고, MBTI를 사상체질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의의는 $p < 0.05$, $p < 0.01$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1. QSCC II 검사결과 기초자료

QSCC II와 MBTI를 시행한 1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3.85 ± 0.38 , 남자 101명(65.6%), 여자 53명(34.4%)이었다. QSCC II 검사에 의한 체질분포는 태양인은 없었으며, 소음인 71명(46.1%), 소양인 32명(20.8%), 태음인 24명(15.6%), 불분명 27명(17.5%)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group by QSCC II

		Total (N=154)	Soumin (N=71)	Soyangin (N=32)	Taeumin (N=24)	Not classified (N=27)
N	male	101(100)	50(49.5)	21(20.8)	14(13.9)	16(15.8)
	female	53(100)	21(39.6)	11(20.8)	10(18.9)	11(20.8)
Age	male	24.13±0.49	23.50±0.61	25.00±1.42	24.86±1.04	24.31±1.33
	female	23.32±0.57	22.76±0.67	23.36±1.71	24.50±1.48	23.27±1.24
TYT		41.88±1.19	38.24±1.54	43.31±2.89	45.63±3.17	46.44±2.60
SYT		44.99±1.11	40.65±1.07	50.78±3.12	45.29±2.75	49.30±3.09
TET		43.13±1.42	40.45±1.59	31.44±3.01	59.54±3.73	49.44±2.81

SET	48.44±1.50	53.03±2.61	41.69±2.69	48.13±2.75	44.67±2.50
SYD	31.98±0.79	31.77±1.08	28.86±1.69	37.82±1.84	31.07±2.13
TED	29.68±0.99	28.14±1.12	22.84±1.97	41.72±2.52	31.14±2.42
SED	30.82±1.05	34.18±1.46	23.50±1.91	33.93±3.05	27.93±2.26
D1	-0.4289±1.15	-1.4748±0.11	-0.8578±0.15	1.7500±0.30	0.8927±0.46
D2	-0.1091±1.12	-1.0838±0.09	1.2700±0.22	-0.3433±0.26	1.0274±0.25
D-SY	31.92±0.84	26.23±0.15	48.50±2.05	25.63±0.32	32.85±0.74
D-SE	35.32±0.85	45.99±0.24	23.72±0.89	26.04±0.42	29.30±0.63
D-TY	2.26±0.06	2.07±0.07	2.56±0.16	2.25±0.11	2.41±0.13
D-TE	28.53±0.70	23.86±0.20	23.19±1.34	44.04±0.57	33.37±0.73
SY	15.62±0.55	11.94±0.52	21.03±1.17	15.46±1.42	19.04±1.32
TE	14.05±0.44	11.83±0.37	10.44±0.56	22.63±0.92	16.52±0.75
SE	30.25±0.90	37.59±1.04	22.47±1.45	26.71±1.81	23.30±1.89

() : percent, Mean ± standard error.

2. QSCC II 결과에 따른 성격유형 검사 기초자료

QSCC II에 의한 체질별 성격유형 검사 결과의 분포는 Table 2. 와 같다.

Table 2. The Cross-tabulation table on MBTI result & each constitution group by QSCC II.

		Total (N = 154)	Soumin (N = 71)	Soyangin (N = 32)	Taeumin (N = 24)	Not classified (N = 27)	
Preference Index	EI	E	33(21.4)	3(4.2)	12(37.5)	11(45.8)	7(25.9)
		I	121(78.6)	68(95.8)	20(62.5)	13(54.2)	20(74.1)
	SN	S	97(63)	41(57.7)	16(50.0)	20(83.3)	20(74.1)
		N	57(37)	30(42.3)	16(50.0)	4(16.7)	7(25.9)
	TF	T	116(75.3)	52(73.2)	25(78.1)	17(70.8)	22(81.5)
		F	38(24.7)	19(26.8)	7(21.9)	7(29.2)	5(18.5)
	JP	J	84(54.5)	41(57.7)	17(53.1)	15(62.5)	11(40.7)
P		70(45.5)	30(42.3)	15(46.9)	9(37.5)	16(59.3)	
Temperament of Keirsey	NF	21(13.6)	11(15.5)	6(18.8)	0(0)	4(14.8)	
	NT	36(23.4)	19(26.8)	10(31.3)	4(16.7)	3(11.1)	
	SJ	65(42.2)	30(42.3)	11(34.4)	13(54.2)	11(40.7)	
	SP	32(20.8)	11(15.5)	5(15.6)	7(29.2)	9(33.3)	
Dominant Function	S	55(35.7)	29(40.8)	8(25.0)	10(41.7)	8(29.6)	
	T	24(15.6)	13(18.3)	7(21.9)	2(8.3)	2(7.4)	
	N	54(35.1)	18(25.4)	13(40.6)	8(33.3)	15(55.6)	
	F	21(13.6)	11(15.5)	4(12.5)	4(16.7)	2(7.4)	
Character Type	ENFJ	-	-	-	-	-	
	ENFP	3(1.9)	-	1(3.1)	-	2(7.4)	
	ENTJ	2(1.3)	-	2(6.3)	-	-	
	ENTP	3(1.9)	1(1.4)	2(6.3)	-	-	
	ESFJ	1(0.6)	-	-	1(4.2)	-	
	ESFP	2(1.3)	-	-	2(8.3)	-	

Character Type	ESTJ	16(10.4)	1(1.4)	5(15.6)	6(25.0)	4(14.8)
	ESTP	6(3.9)	1(1.4)	2(6.3)	2(8.3)	1(3.7)
	INFJ	4(2.6)	3(4.2)	1(3.1)	-	-
	INFP	14(9.1)	8(11.3)	4(12.5)	-	2(7.4)
	INTJ	14(9.1)	9(12.7)	3(9.4)	2(8.3)	-
	INTP	18(11.7)	10(14.1)	3(9.4)	2(8.3)	3(11.1)
	ISFJ	8(5.2)	5(7.0)	1(3.1)	1(4.2)	1(3.7)
	ISFP	6(3.9)	3(4.2)	-	3(12.5)	-
	ISTJ	39(25.3)	23(32.4)	5(15.6)	5(20.8)	6(22.2)
	ISTP	18(11.7)	7(9.9)	3(9.4)	-	8(29.6)

() : percent.

3. 결과

QSCC II에 의한 사상체질 결과와 MBTI에 의한 성격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QSCC II 결과에서 불분명하게 체질 판별된 27명을 제외한 127명의 QSCC II와 MBTI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체질별 MBTI 선호지표 차이

Table 3. The difference of MBTI score among three Sasang constitution groups.

	Soumin (N = 71)	Soyangin (N = 32)	Taeumin (N = 24)	F	p
EI	133.13 ± 17.43 ^b	107.00 ± 22.80 ^a	112.92 ± 29.86 ^a	18.922**	0.000
SN	92.92 ± 24.03 ^b	100.19 ± 19.85 ^b	78.92 ± 18.04 ^a	6.510**	0.002
TF	86.80 ± 21.40	89.56 ± 17.06	88.50 ± 19.88	0.224	0.799
JP	94.69 ± 31.92	101.50 ± 29.09	89.83 ± 36.96	0.946	0.391

Mean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34.087

b. The group sizes are unequal. The harmonic mean of the group sizes is used. Type 1 error levels are not guaranteed.

2. 체질별 MBTI 선호지표, Keirsey 4기질, 주기능

Table 4. The result of Pearson Chi-square(χ^2) test on Preference Index, Temperament of Kiersy and Dominant Function

	Preference Index				Temperament of Keirsey	Dominant Function
	EI	SN	TF	JP		
χ^2	26.691**	6.945*	0.430	0.498	8.560	5.144
p (2-sided)	0.000	0.031	0.807	0.780	0.200	0.525

3. 체질 척도II(D-SY, D-SE, D-TY, D-TE)와 MBTI 선호지표의 상관관계

Table 5. The result of Correlations between Constitution scale and MBTI preference score

		EI	SN	TF	JP
D-S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304**	0.154	0.098	0.139
	p (2-sided)	0.000	0.056	0.228	0.085
D-S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511**	0.012	-0.105	-0.101
	p (2-sided)	0.000	0.878	0.195	0.213
D-T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403**	-0.001	0.104	-0.073
	p (2-sided)	0.000	0.989	0.198	0.366
D-T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218**	-0.210**	-0.005	-0.049
	p (2-sided)	0.007	0.009	0.949	0.543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sided)

4. MBTI를 이용한 체질 판별

MBTI 검사 결과를 이용한 사상체질의 판별이 QSCC II를 통한 판별과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보기 위하여 판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MBTI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을 구별함에 있어서 유의한 판별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57.9% 일치를 보였다.(Table 6)

Table 6.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on thre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tiation using the MBTI score.

Discriminant Function	Functions	EI	SN	TF	JP	Eigenvalue
	1		1.006	-0.128	-0.028	-0.107
2		0.021	1.055	-0.249	-0.069	0.106
Test of Function(s)	Functions 1 through 2	Wills' Lambda		df	Chi-square	p
	2	0.685	0.904	8	45.891	0.000
Group centroid	Functions	Soeumin		Soyangin		Taeumin
	1	0.475		-0.801		-0.371
	2	-0.071		0.323		-0.628
QSCC II result	N(126) ^{a)}	Predicted Group Membership ^{b)}				
		Soeumin	Soyangin	Taeumin		
Soeumin	71(100%)	47(66.2%)	10(14.1%)	14(19.7%)		
Soyangin	31(100%)	8(25.8%)	17(54.8%)	6(19.4%)		
Taeumin	24(100%)	9(37.5%)	6(25.0%)	9(37.5%)		

a) Classification Processing summary : Processed(127), Excluded(at least one missing discriminating variable : 1), Used in Output(126)

b) 57.9 %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QSCCⅡ로 체질 감별된 연구대상자들의 체질 그룹을 파악해주는 판별식을 찾아내고, 연구 대상을 체질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p < 0.05$ 로 의미가 있는 MBTI 설문항목

11개 변수에 대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더니, 이 문항들로 QSCCⅡ와 동일한 체질판별은 72.7% 일치율을 보였다.(Table 7)

Table 7. The result of discriminant analysis on three sasang constitutional differentiation using the MBTI question item.

MBTI question item	p	Willks'Lambda	Function 1 ^{a)} Function 2 ^{b)}	
			Function 1 ^{a)}	Function 2 ^{b)}
M65	0.003	0.420	-0.511	0.188
M82	0.012	0.408	0.101	0.719
M9	0.003	0.420	0.464	0.310
M35	0.000	0.439	-0.570	-0.300
M46	0.045	0.398	0.065	0.556
M84	0.001	0.426	-0.551	0.239
M32	0.002	0.422	0.524	-0.338
M7	0.010	0.409	0.426	-0.117
M17	0.003	0.419	-0.496	0.211
M37	0.030	0.401	0.386	-0.130
M43	0.043	0.398	0.370	0.183
QSCCⅡ result	N(121) ^{c)}	Predicted Group Membership ^{d)}		
		Soumin	Soyangin	Taeumin
Soumin	67(100%)	52(77.6%)	5(7.5%)	10(14.9%)
Soyangin	31(100%)	3(9.7%)	21(67.7%)	7(22.6%)
Taeumin	23(100%)	6(26.1%)	2(8.7%)	15(65.2%)

a) Function 1 at Group Centroids : Soumin(0.930), Soyangin(-1.465), Taeumin(-0.533)

b) Function 2 at Group Centroids : Soumin(0.141), Soyangin(0.442), Taeumin(-0.976)

c) Classification Processing summary : Processed(127), Excluded(at least one missing discriminating variable : 6), Used in Output(121)

d) 72.7% of original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변수로 사용된 설문문항 11개는 M65, 82, 9, 35, 46, 84, 32, 7, 17, 37, 43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65. (A) 말이 별로 없음 - 내향형, (B) 말로 쉽게 표현함 - 외향형

M82. (A) 건설하다 - 감각형, (B) 발명하다 - 직관형

M9. 나는 사람들이 많은 그룹내에서 (A) 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편이다. - 외향형, (B) 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하는 편이다. - 내향형

M35. (A) 생각함 - 사고형, (B) 느낌 - 감정형

M46.(A) 현실 - 감각형, (B) 이념 - 직관형

M84. (A) 시간적으로 정확한 - 판단형, (B) 유유자적한 - 인식형

M32. 어떤 일을 언제 할 것이라는 계획이 미리미리 짜여졌을 때 나는 (A) 그것에 맞추어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좋다고 느끼는 편이다. - 판단형, (B) 일정에 메이는 것 때문에 싫은 편이다. - 인식형

M7. 자신은 어떤 것이 더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합니까. (A) 솔직하고 감정적인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 - 감정형, (B) 꾸준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불리우는 것 - 사고형

M17.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A) 소식이나 소문을 제일 늦게 얻어 듣는 편이다. - 내향형, (B)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소식이나 소문에 밝은 편이다. - 외향형

M37. 나는 친목회나 파티석상에서 (A) 때로 지루하게

느낀다. - 내향형, (B) 언제든지 재미있다. - 외향형
M43. (A) 분석하다 - 사고형, (B) 공감하다 - 감정형

IV. 고찰

李濟馬의 四象醫學에서 인간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⁹⁾. MBTI에서는 4가지 선호경향 즉, 힘의 근원에 대한 외향성과 내향성, 사물을 보는 관점인 감각과 직관, 의사결정의 근거인 사고와 감정,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경향 즉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과 인식이 있으며, 이 선호경향의 조합인 16개 성격유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¹⁰⁾

본 연구결과에서는 154명을 대상으로한 MBTI 실시 결과, EI 지표는 외향성(E)이 21.4%로 나왔고 내향성(I)가 78.6%로 나왔다. 이는 MBTI 한국판 제작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 대학생의 43.65%가 외향성이고 56.35%가 내향성인 것에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한의과대학생들은 내향성이 많은 것을 나타냈다⁸⁾.

기질(Temperament)은 개인의 여러 가지적인 행동속에 내재하는 패턴의 일관성으로 개인의 행동속에 나타나는 지문과도 같은 것으로, 4가지 기질분류를 MBTI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은 SJ는 Epimetheus · 보호자적 태도로 membership-oriented people이며, SP는 Dionisious · 예술가적 태도로 action-oriented people이고, NF는 Apolo · 이상적인 태도로 relationship-oriented people이며, NT는 Prometheus · 합리적 태도로 theory-oriented people이다¹¹⁾.

본 연구결과에서는 SJ 기질이 42.2%, SP 기질이 20.8%, NF 기질이 13.6%, NT 기질이 23.4%로 나타났다. 이는 MBTI 한국판 제작과정에서 보여준 대학생의 경우 SJ 기질이 44.41%, SP 기질이 29.22%, NF 기질이 14.37%, NT 기질이 12.42% 인 것과 비교시, 본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NT기질이 상대적으로 많고 SP기질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합리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예술가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체질별 Keirsey 4기질간에는 모두 보호자적태도(SJ)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음인(42.3%)과 태음인(54.2%)에서 SJ가 소양인(34.4%)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합리적태도(NT)의 경우 소양인(31.3%)이 소음인(26.8%), 태음인(16.7%)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예술가적태도(SP)의 경우 태음인(29.2%)이 소양인(15.6%), 소음인(15.5%)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⁸⁾.

MBTI 성격 유형은 16가지이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ISTJ형이 25.3%로 가장 많았고, ISTP, INTP형이 각각 11.7%, ESTJ형이 10.4%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ISTJ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금욕적이고 철저하며 과로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며, 기어코 일을 완성시키며 정해진 일정표에 맞춰 그일을 완수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하며 성실한 사람들이다. MBTI의 한국판 제작과정에서 보여주는 대학생 전체의 성격유형분포가 ISTJ형이 16.86% 차지하는 것과 자연과학계열에서 ISTJ형이 18.42%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ISTJ형(25.3%)이 월등히 많다고 하겠다. INTP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논리적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편적 진리와 원리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에게 “왜 그래?”, “왜 아니야?”를 묻는 분명하고 이해가 빠른 사색가로서 자신들이 흥미를 갖는 일에 매우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특징적으로 INTP형이 11.7%로 앞선 자료의 전체대학생의 경우 3.12%와 자연과학계열 7%와 비교시 월등히 많다고 하겠다. 향후 더 많은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하겠지만, 한의과대학생의 특성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⁸⁾¹⁰⁾.

채⁷⁾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 제시된 각 체질별 性情, 才幹들과 MBTI 지표간의 상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太陽人의 性氣가 “恒欲進而不欲退”하는 것과 少陽人의 性氣가 “恒欲舉而不欲措”한 것은 E(외향성)이 활동적, 외부로의 특징을 지니는 것과 유사하며, 太陰人의 性氣가 “恒欲靜而不欲動”하는 것과 少陰人의 性氣가 “恒欲處而不欲出”하는 것은

I(내향성)이 반영적, 내부로의 특징을 지니는 것과 유사하다. 외향성이 사교적으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태양인이 交遇를 잘하는 것과 비슷하며, 내향성이 깊이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음인이 黨與를 잘 하는 것과 비슷하다⁹⁾.

본 연구에서의 각 체질별 분포는 『東醫壽世保元』⁹⁾이나 QSCC II표준화 연구¹⁾와 비교해 본다면, 『동의수세보원』에서는 태음인 50%, 소양인 30%, 소음인 20%이었으며, QSCC II표준화 연구에서는 태음인 41.9%, 소양인 20.5%, 소음인 37.6%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체질판별이 된 127명 기준으로 소음인 55.9%, 소양인 25.2%, 태음인 18.9%로 태음인이 월등히 적고 소양인은 약간 적으며, 소음인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MBTI 검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내향성(I)이 78.6%로 매우 높은 것과 ISTJ형이 25.3%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각 체질별 MBTI 검사의 결과를 체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호지표 EI 경우,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모두 내향성이 많았으나, 소양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외향성에 가까웠고, 소음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내향성이 월등히 많았다.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순으로 내향성이 강하였으며, 이는 소음인군과 태음인, 소양인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통계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음인이 뚜렷한 내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박⁶⁾의 경우 소양인, 태음인이 동질집단으로 외향성을 나타내고 소음인이 뚜렷한 내향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며, 채⁷⁾의 경우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소양인이 다른 체질보다 외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과는 같으나 태음인이 내향성에 가까운 것과는 상이하다 하겠다. 채⁷⁾의 연구에서는 소양인을 태음인과 소음인을 구분하는데 EI 지표의 의의를 말하면서 태음인, 소음인을 내향성으로 소양인을 외향성으로 구분 짓고자 하나, 본 연구결과와 박⁹⁾의 연구를 보건대 오히려 태음인, 소양인은 외향성으로 소음인은 내향성에 가깝게 나타난다.

선호지표 SN의 경우, 소음인과 태음인은 감각(S)이

많고, 소양인은 동일하게 나왔으나, 선호도 연속점수에서는 평균이 100 이상인 것으로 보아 다른 체질보다 직관(N)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소음인, 태음인의 경우 모두 감각(S)이 많으나, 태음인의 경우 SN 연속점수가 78.92±18.04로서 감각에 아주 가까웠으며, 이는 소음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그룹간의 구별을 나타내었다. 즉 태음인은 소음인, 소양인과 SN지표에서 유의성 있는 그룹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⁶⁾ 채⁷⁾의 경우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이 감각(S)을 선호하는 동질집단으로 묶이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 소음인과는 다르게 태음인이 감각(S)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지표 TF의 경우, 세체질 모두 사고(T)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의 순으로 사고(T)를 선호하나,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박⁶⁾의 경우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감정(F)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채⁶⁾의 경우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순으로 사고(T)를 선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선호지표 JP의 경우, 선호도 연속점수에서 소양인이 인식(P)에 가깝고 소음인과 태음인은 판단(J)에 가까우나 그룹간의 차이는 없게 나왔다. 이는 박⁶⁾의 경우는 모두 인식형에 가깝게 연속점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의 순으로 태음인이 판단형에 가깝게 나온 결과와 채⁷⁾의 경우 소양인과 태음인은 인식형(P)에 가깝고 소음인이 판단형(J)에 가깝게 연속점수 분포를 보이는데, 소음인군이 소양인, 태음인군과 그룹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판단형(J)에 해당하는 것과는 상이한 결과 였다.

체질척도 II와 MBTI 선호지표의 상관관계에서는 외향성-내향성 선호지표(EI)는 소음인 경향성(D-SE)이 높을수록 내향성(I)에 가까웠으며, 소양인(D-SY), 태음인(D-TE), 태양인 경향성(D-TY)이 높을수록 외향성(E)에 가까웠으며, 감각형-직관형 선호지표(SN)는 태음인 경향성(D-TE)이 높을수록 감각형(S)에 가까웠다. 따라서 소음인 경향성이 클수록 내향성이며 태음인 경향성이 클수록 감각형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사상체질의性情은 체⁷⁾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음인은 ISTO, ISFP형과 유사하고, 소양인은 ENTJ형과 유사하며, 태음인은 INF○와 유사하다는 등등의 추론이나, 박⁵⁾의 연구에서와 같이 소양인은 외향성, 감각형, 감정형, 판단형에 가깝고 태음인은 내향성,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에 가까우며, 소음인은 내향성, 감각형, 사고형에 가깝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본 연구에서 QSCC II를 통한 체질결과와 MBTI를 비교했을시에는 태음인을 내향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즉 체⁷⁾의 연구에서와 같이 陰陽人으로 구분지어 太陰人을 陰人으로 보아 내향성으로 보는 것은 향후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MBTI 연속점수를 이용해 사상체질진단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판별분석에서는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전체를 놓고 볼 때 57.9%의 일치도를 보였는데, 이는 체⁷⁾의 연구보다는 낮은 일치도로서 선호지표로 체질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보이고, MBTI 검사시 연구 대상자들이 선택기입한 문항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진단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판별분석에서는 72.7%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선호지표로 얻은 판별분석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향후 MBTI 문항 내용을 사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QSCC II 문항에 대한 연구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MBTI에서는 인간은 각각 독특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행동들도 있고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행동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통되는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동양식(Pattern)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양식들은 변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며, 자신의 이러한 양식들 때문에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유형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양식(Life type)이고, 자신의 삶의 양식과 유사한 양식을 지니고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양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 각자가 자신의 행동양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다⁸⁾. 이것은 이제마가 이야기한 知行, 克己, 知人正己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⁹⁾, 사상의학에서 제시하는 知行論과 MBTI에서 추구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사료된다.

앞선 연구결과들³⁾⁴⁾⁵⁾⁶⁾⁷⁾과 본 연구결과에서 사상체질과 MBTI 지표간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체질과 MBTI 지표간의 유의성있는 관련성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체⁷⁾의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한 일대일 대응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상의학에서 知行論을 사람에게 적용하고 평소 養生과 治療에 보다 실질적으로 응용하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MBTI 성격유형, 선호지표, 기질론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향후 더 많이 진행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체질 진단과 性情 분석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상의학의 知行論과 융심리학을 바탕으로한 MBTI의 건강한 정신을 상호 교류하여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한다고 사료된다.

V. 결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사상체질분류검사(QSCC II), 성격유형검사(MBTI)의 성격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을 서로 구별함에 있어서 MBTI 문항을 이용한 판별함수는 72.7%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MBTI 선호지표를 이용한 판별함수는 57.9%의 일치도를 보였다.
2. 소음인은 외향성-내향성(EI) 연속점수에서 뚜렷하게 소양인, 태음인과 구별지어 내향성을 보였다.
3. 태음인은 감각형-직관형(SN) 연속점수에서 뚜렷하게 소음인, 소양인과 구별지어 감각형을 보였다.
4. 소양인은 선호지표 연속점수에서 소음인, 태음인과 달리 직관형, 인식형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색인어】 사상체질, MBTI, QSCC II

참고문헌

1.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 각 체질집단의 군집별 Profile 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1996 ; 8(1) : 187-246.
2.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에 대한 타당성 연구 - 각 체질집단의 군집별 Profile 분석을 중심으로」. 『사상의학회지』1996 ; 8(1) : 247-294.
3. 김인태, 고병희, 송일병. 「융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李濟馬의 知人論, 四象人과의 비교 고찰」. 『사상의학회지』1996 ; 8(2) : 95-116.
4.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四象體質)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 성격요인검사 16PF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1993;5(1)5(1):81-98
5. 조용태,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准据妥當化 (준거타당화) 연구-성격요인(16PF), 성격유형검사(MBTI)와의 비교분석-」. 『사상의학회지』 1994 ; 6(1) : 21-39.
6. 박희관, 이종화.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1998 ; 10(2) : 41-50.
7. 채한, 이수진, 이진우, 노삼웅, 배현수, 홍무창, 신민규. 「Myers-Briggs Type Indicator와 Bioelectrical Impedance Analysis를 이용한 四象 體質의 特性 研究」.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1 ; 15(1) : 42-48.
8.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MBTI 개발과 활용』. 초판.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5 : 309-313, 1-49, 365-367.
9.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엮음. 『사상의학』. 1판. 서울 : 집문당. 1997 : 74-76, 349, 439, 495.
10. 심혜숙, 임승환역.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초판. 서울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9 : 1-96
11. 한국MBTI연구소. 『MBTI전문자격교육 · 중급과정자료집』. 한국MBTI연구소. 2001 : 12-14 .